

[기획연재]

기독교 신앙과 입양 1

신원하 교수 / 2003 / 페이지 수: 2

I. 한국사회의 입양 현실과 장애물

한국 사회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를 친자식으로 삼는 입양에 개방적인 사회가 아니다. 여기에는 한국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유교문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과 “피붙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의 혈연중심적인 가족관과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50년 이후 한국은 약 14만 명의 아이들을 외국에 보냈다. 최근 미국으로 보내진 입양아들은 2000년에 1794명, 2001년에는 1870명에 이른다. 반면 국내 입양은 외국으로 보내는 아이의 약 삼분의 일가량이다. 장애아의 경우 그 차이는 더 커지는데, 현재까지 약 3만 3천명의 장애아들이 외국으로 보내졌고 국내에는 약 160명 정도만 입양되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입양에 관해서는 일반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이는 한국교회가 교인들에게 사회적 봉사과 윤리적 책임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소홀해 온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입양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00년 4월, 동방사회복지회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땅의 아이 우리가 키웁시다”라는 구호로 국내입양운동을 전개했고 이후 언론사와 방송사가 호응하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고양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입양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적 가족관이 ‘기독교적 가족관’과 다름을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언약에 대한 혈통 중심적 편견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비성경적인 오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서 교회는 성경이 입양에 대해 가르치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여서 고집어내는 신학적인 작업을 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기독교공동체들을 위해서 입양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인 토대를 세우는 것은 입양과 관련된 그 어떤 일 보다도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작업이다.

II. 성경과 입양

1. 구약에 나타나는 입양개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그의 집에서 일하던 총복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창 15:3). 이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미 입양했거나 또는 입양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였다(창 48:5~6). 그러나 입양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찾을 수 없고, 실제로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입양에 관한 제도가 없었고 또 입양이 시행되었다는 기록도 찾기 힘들다.

입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양의 이미지와 은유적 표현은 중요한 주지(motif)로

서 구약에 등장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고(출 4:22). 피투성이가 되어 내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 입양아로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했다(겔 16:6~7).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호 11:1)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아들이고 당신은 그 아버지라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와 맺은 언약에서도 입양이라는 은유적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그(다윗의 후손) 아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삼하 7:14).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아들로 입양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다윗 또한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버가 될 것임이라”고 하나님의 입양하심에 대해 재확인한다(대상 28:6).

메시아 시편이라고 분류되는 시편 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로 삼으셨음을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 2:7)라고 선언하자, 다윗은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시 89:26)고 화답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특별히 선택하여 아들을 삼았기에 다윗이 죽고 난 뒤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를 돌보고 키우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구약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들의 관계로, 즉 입양의 이미지로 설명한다.

신원하 교수 /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출처 : 온누리신문